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성탄절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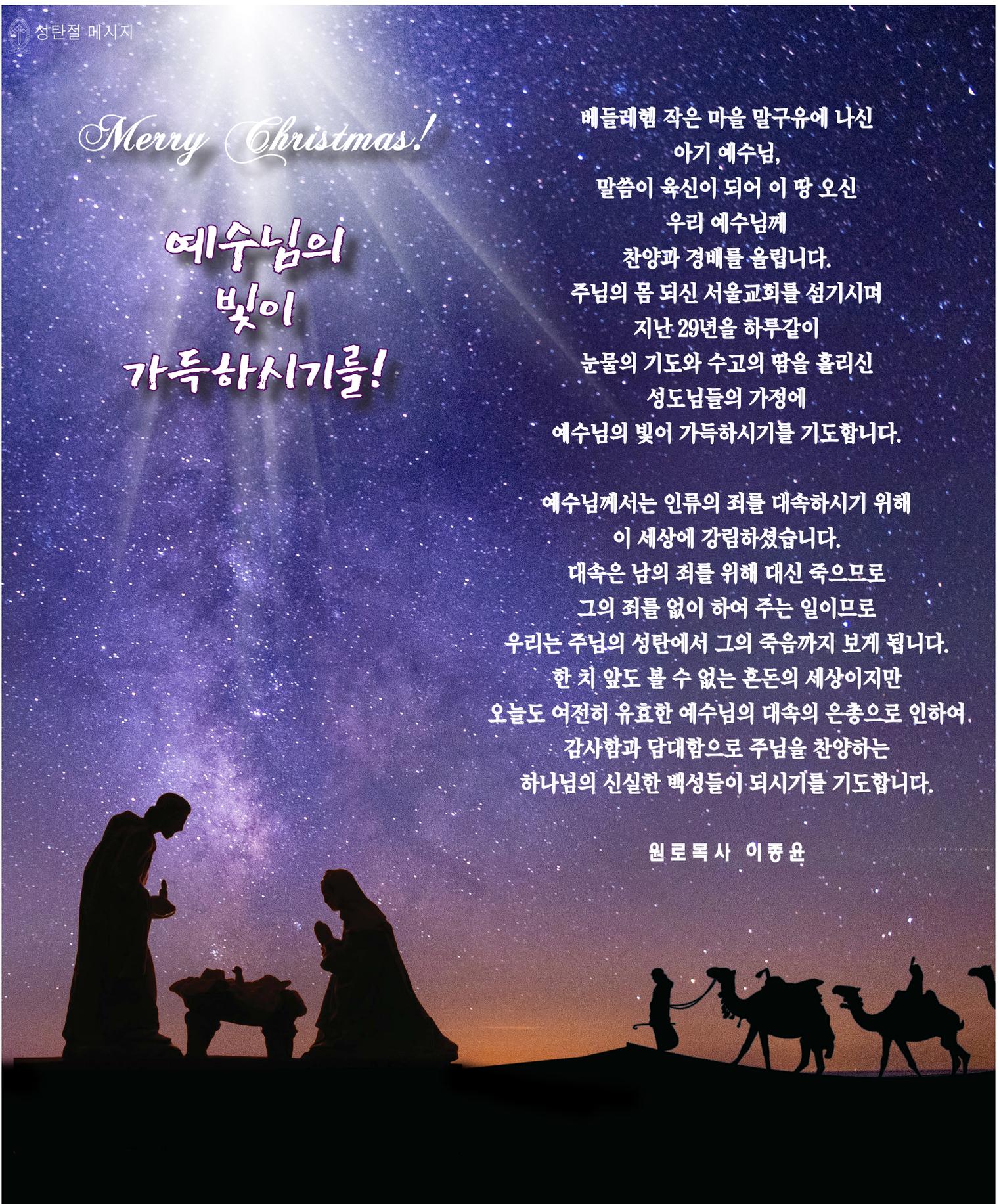
Merry Christmas!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오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섬기시며
지난 29년을 하루같이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을 흘리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대속은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므로
그의 죄를 없이 하여 주는 일이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탄에서 그의 죽음까지 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혼돈의 세상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로목사 이종윤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코로나19 사태로 차분하고 경건한 성탄절이 되도록 -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주님 탄생을 기뻐해야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회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최대한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은 행사들을 중단하였다.

먼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이었던 교회학교 성탄축하 특별행사는 취소했으며 임마누엘찬양대의 성탄축하 특별찬양은 중창과 독창으로 축소하였다.(3면 참조)

성탄절 전날 24일(목) 찬양사역자들의 특별감사찬양과 성탄절야 예배도 취소하였으며 성탄절 당일 새벽기도회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

25일 성탄 당일 성탄축하 예배는 11시 예배로 1회 드리며 이때 목사·장로·직원 등 20명만 참석하는 교회 현장 예배를 성도들에게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한다.

올 성탄절은 차분하고 경건하게 우리에게 이 시련의 시기를 주신 주님의 뜻을 되돌아보고 회개와 감사드리는 계절이 되도록 하자.

총회 재심재판국,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하여 무죄판결 하다

- 앞서의 견책판결 파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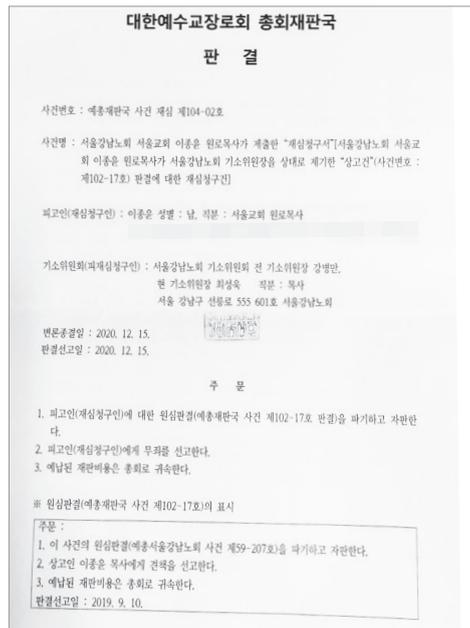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이 개시된 2017년 1월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인도한 행위에 대하여, 2017년 11월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종윤 목사에게 출교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2019년 9월 10일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은 위 출교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하고 견책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종윤 목사는 곧바로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제105회기 총회재판국은 지난 12월 15일(화) 관여 재판국원 전원일치로 위 견책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이유에 따르면,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은 이미 국가법원에서 1, 2심을 통하여 거듭 적법, 유효함이 확인되어 박노철 목사는 시무 후 6년이 경과한 2017년 안식년에 해당하였고, 안식년 기간 중에는 시무하지 않는 것인데도 원심은 박노철 목사가 계속 시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라고 판시했다.

또 당시 헌법위원회에서도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이 교단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이종윤 목사는 당시 그 해석의 정당함을 믿고 대리당회장 직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 행위에 헌법이나 제 규정에 위배된다는 고의는 물론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이종윤 목사는 은퇴 이후 당시까지 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던 중 박노철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계속 당회를 거부하며 예산공백사태까지 야기한 시급한 상황에서 원로목사로써 교회의 시급한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다수 당회원들의 청빙에 응하였던 것이고 또 당시 주관한 예, 결산처리는 신년도 예산공백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이었다는 점 등도 참작할 사유라고 판시했다.

결국 이종윤 목사의 대리당회장 직무행위 당시까지의 헌법해석과 법원의 거듭된 안식년규정



관련 본안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해석 등만을 가지고 견책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교회 분쟁 발생 이후 앞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서명철 목사 등 부목사 3명에 대한 정직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된데 이어,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출교판결까지 또다시 파기되고 결국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서울강남노회가 그동안 지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아닌, 오직 기쁨조를 자처한 박노철 목사만을 비호하려는 의도 하에 의도적, 자의적 판결만을 일삼아 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번역 및 총회 표준주석 발간 등으로 한국교회는 물론 통합교단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온 이종윤 목사를 교단 최고재판국에서 이례라도 바로 잡는 최종판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극히 다행스런 결과라 할 것이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윤요섭·안재희 윤종현 장창수·박혜정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연말연시 행사

- 12. 20(주) : 성탄축하 찬양예배 (임마누엘찬양대)
 - 교육부 성탄축하 특별행사 취소
 - 교육부서 성탄선물은 부서 자체 계획에 따라 집행
- 12. 25(금) : 성탄축하 예배 : 11시
- 12. 27(주) : 교회학교 졸업감사 예배(온라인)
- 1. 3(주) : 신년감사 예배

2020 성경통독자 명단 취합

2020 한해 동안 성경통독한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성경통독표를 제출하기 바란다.

- 마감 : 12월 26일(토)까지
- 방법 : 각 교구간사에게 "성경통독표" 제출
- 상품 :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혹은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18년 성경지도나 19년도 조병호 목사 시리즈도 선택 가능하다.)
- 기타문의 : 김혜연 집사 [010-3923-9913]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 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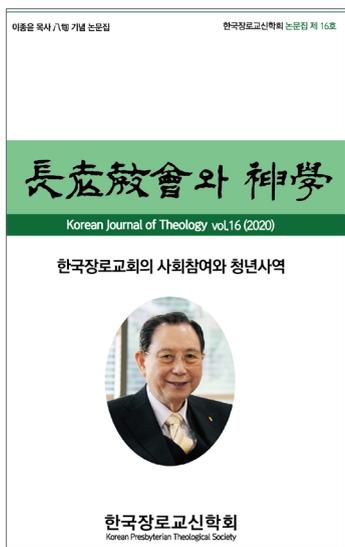
부활이요 죄인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서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나같은 죄인을 살
려 영생을 주시려고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
신 감사와 기쁨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가족들과 29년 전 새 예배당 입당식을 마치
고 함박눈을 맞으면서 귀가하던 날, 마치 천국
입성식을 하는 것과 같았던 그 느낌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천국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 12.18.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작은 종
이종윤 드립니다

이종윤 목사 팔순 기념 논문집 발간 - '장로교회와 신학' 제16호 -

한국장로교신학회(회장 안명준 박사)는 학회지 '장로교회와 신학' 제16호를 발간하며 이 책을 한국장로교신학회를 창립하신 이종윤 목사 팔순 기념 논문집으로 명명했다. 이종윤 원로목사는 2002년에 한국장로교신학회를 창립하고 여러 신학자들과 함께 신학적 연구와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한국교회의 신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상규 박사(백석대학교 석좌교수)는 이 책 서두에서 여러 방면으로 한국 교회에 헌신한 이종윤 목사에 대해 서술하며 이종윤 목



사는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한국교회를 건설한 개혁주의 교회로 세우려고 노력하며 한국교회 갱신과 쇄신을 위해 헌신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의 연합과 통합 운동에 기여하였고 북한인권운동과 탈북자들의 인권운동, 자유민주주의와 건설한 사회운동에도 기여에 참여했다고 하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종윤 목사가 남긴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봉사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안명준 박사(평택대학교)는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가 선정한 '올해의 신학자'로 선정되었다.

청년부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부

청년 1·2부는 대림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종락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도부터 영·유아의 유기, 사망 방지를 위한 베이비박스라는 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연 200명 이상의 아기들을 살리고 거기에 더불어 미혼모 가정 지원 및 장애아를 기르시는 사역도 하고 있기에 필요한 물품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부에서는 각 회원들로부터 특별 모금을 받아 필요 물품을 준비하여 19일(토) 오전에 이종락 목사님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청년부 일동-

성탄축하 특별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유태앙 집사
(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을 향해가며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 성탄절 절기찬양을 맡았던 임마누엘찬양대는 우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뒤로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독창 2곡과 이중창 1곡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 합니다.

- 오늘 올릴 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기 예수(by Dianne Brumly) - 독창 : 장하영
 - 내 맘에 구주 오셨네(작사 작곡 김관호) - 독창 : 장윤아
 - Amor Dei(작사 작곡 구자철) - 이중창 : 이성훈, 장하영

비록 3곡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원 모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독창 2곡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Amor Dei'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모두 표현한 단어로 이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함(Amor Dei)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끌어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부요와 풍요를 안겨다 줍니다.

비록 소박한 찬양 프로그램이지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저녁의 찬양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2021년을 기약하며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유·초등부 사랑의 택배

장윤기 집사 (유년부 부장)
김혜연 집사 (초등부 부장)

유년부·초등부는 지난 12월 15일(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난 하반기 달란트 잔치와 사명자대회 출석상 등을 전달하는 '사랑의 택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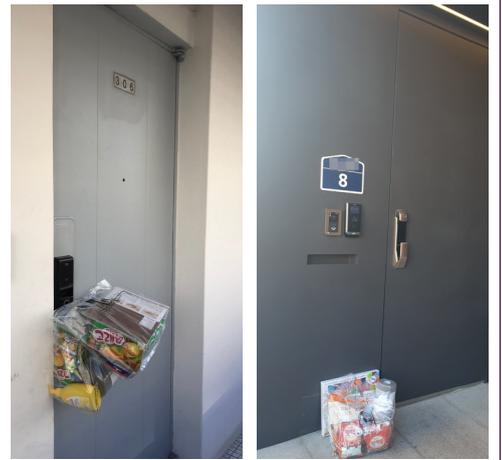
포장은 박미라 전도사님, 임미경 집사님, 김연화 집사님, 남재은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각 선생님들과 담당하신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미경 집사님: 김종혁 김종현 한세아 오선아 오승아 최시원
- 오선혜 집사님: 노준 노윤 권도영 최연수 이주호 이윤후

- 박미라 전도사님: 우정균 우정서 배은준 배은찬 김은준 김하준 이윤익 김도윤
- 남재은 집사님, 노애리 집사님: 임하람 임하울 오유민 김태환 김보민 김하준 김하민 유서연 손재원 최주하 최무진 김선후 최지성 임세연 이하은 김재윤
- 우체국 택배는 김민아 집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진·하윤 김서연·연우 유하연 윤석민 이시우 장유정 이재산·재중 한예승
- 직접 가지러 온 학생은 임라임·준우·시우 주하은·하연 장한솔 김수아 나윤서 정우성
- 교회내 가족 전달 : 조연우·건우 윤서진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 위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택배'를 준비하신 손길들



비대면으로 전달된 선물들



(6면에서 계속)



성탄절 저녁에 드리는 가족예배

예배 순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 가족 중(어른)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함께 부르는 찬송 108장(통일 113장) 다함께
 교독문 다함께

- 인도자 :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 주셨으니
- 가 족 :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 인도자 :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 가 족 :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 인도자 : 오늘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셨다.
- 가 족 :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 인도자 :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 가 족 : 이것이 바로 그 분을 알아보는 표입니다.
- 인도자 :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 가 족 : 땅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감사기도 다함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
 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구유보다 더 추한 우리의 가슴 속에 오시옵소
 서. 이제부터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부르는 찬송 111장(통일 111장) 다함께
 말씀 마태복음 1:18-25 가족 중(어린이)
 성탄절 메시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가족 중(어른)
 주기도 다함께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심이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
 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오래 전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고 예언하
 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오래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
 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미 5:2).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대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
 질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그 말씀대로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왔을 때에 로마 황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으니 미가 선지자의 예언도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
 속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의 약속이 이루어진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
 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
 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면 유·초등부 사랑의 택배 계속)



우아!!! 아이들 신났겠어요!
추운 날 넘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오선아·승아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자마자 포장을 다 뜯어 버려서 이번에도 인증 샷은 못 찍었구나 했는데 ㅎㅎㅎㅎ 감사드려요~~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네요^^
김종혁·종현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히 지내세요~^^
한세아

집사님, 춥고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유서연

너무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집 앞까지 배달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하준·은준

유·초등부 선생님 정말 최고!!!!!!
감사합니다~~~~
김선후

사랑 많으신 우리 전도사님
아! 애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네요.
맛있다 맛있다^^연발하면서요.
전도사님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세요
♡♡♡
배은찬·은준 할머니

날도 추운데..ㅜㅜ 정말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재원이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손재원

웅와!! 완전 감사합니다!!
완전 서프라이즈예요!!!
흐흐 아직 반응을 제가 못 봤는데 하민이가 엄청 달란트 잔치를 기다렸다가 없어서 아쉬워했거든요. 난리 났을 거예요!
김하민·하준

추운데 집 앞까지... 감사합니다!
최지성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이주호·윤후

어머!!! 감사합니다~~
아이들 너무 신나하겠어요!
추운날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려요^^
최주하·무진

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도영이가 넘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오셨는지 알았으면 도영이가 나갔을 텐데... 추운데 차 한 잔 대접도 못하고 넘 죄송해요
권도영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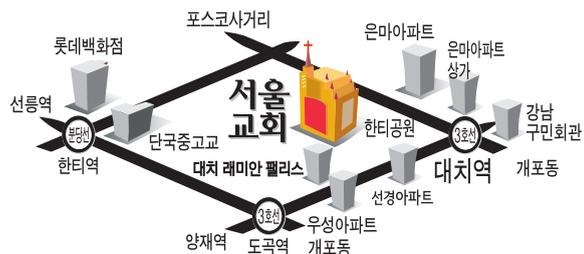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2. 교회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께서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